

상호금융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9.7.4.(목) 10:00~11:00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상호금융권이

국민들께 보다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님을 비롯한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대표님들,

금감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금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금융이용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상호금융권 현황 및 정책환경 평가

여러분,
상호금융은 그간 빠른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층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 상호금융 총 자산 : ('01말)185조원 → ('19.3말)688조원 (+3.7배)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하여,
3,669만명(계좌수 기준)에 이르는 조합원과
지역사회 금융 이용자 등에게
비과세 예·적금 등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 거주·저신용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지역밀착·서민금융 공급의
모세혈관으로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차주 대출 비중('19.3말) :
(상호금융)63% (은행)35% (저축은행)18%

*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현황(가계·개인사업자 대출)('19.3말) :
(상호금융)35조원 (은행)27조원 (저축은행)10조원

그러나, 최근의 정책 환경을 볼 때,
상호금융권의 금융 서비스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라
빠르게 진화하는 IT 기술 환경으로
지역·서민층 대상 금융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고 고객 친화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비롯한
새로운 금융회사들이 출현하고,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 지면서,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살아남는
경쟁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서민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상호금융의 특성상
지역 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돌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Ⅲ.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정부는

상호금융권이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께 한단계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조합원과 예금자 등이

전체 상호금융권에 있는

본인의 예·적금, 출자금, 배당금 상황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예금자 분들이

예·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권 금융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서민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금융당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또한,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하는 가치도 아닙니다.

민·관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을
동시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가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의 가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